산업보건,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기업의 약속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설립 이래 전국 16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전설비 운전·정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도해 왔다. 아울러 보일러, 터빈, 탈황, 석탄 취급 설비 등을 정비하면서 화력발전소 전반에 걸쳐 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답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도 진심이다. 최근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며 산업 안전과 보건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다.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노동자의 사고·질병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장수연 보건관리자를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강권신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처
보건관리자

장수연

이달의 한마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보건이 발달하려면 안전과 보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떼려야 뗄 수 없는 '보건'과 '안전'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 산업보건 분야 핵심 인력인 장수연 보건관리자는 대학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고, 작업환경측정 관리자로 4년 정도 일하다가, 주도적으로 보건관리 일을 하고 싶어 입사했다. 지금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선임 보건관리자로서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걷기, 금연, 비만 클리닉 같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 직원의 건강을 위해 전반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노동자를 산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죠.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면 사업장에 전문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작업 장소 변경, 다른 작업으로의 전환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보건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로 인해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안전은 예방, 보건은 치료 정도로 여기며 보건의 역할을 국한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보건이 발달하려면 안전과 보건은 떼려야

Health Manager

뗄 수 없는 보완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건과 보건관리자에 관한 사업장의 인식 개선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직업, 보건관리자

장수연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건강 상담, 노동자 마음 건강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이동 금연 클리닉, 소방서 주관의 심폐소생술 교육, 공기호흡기 착용 교육 같은 전문 영역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보건관리국의 보건관리위탁 업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맞춤형 청력 보호구 지급,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용 생수 지급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무나 전문가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업무는 장수연 보건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아요.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복 작업이나 특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발병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청각 질환 등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예방법을 교육하는 것처럼요. 보건관리자는 능동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챙기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이러한 태도는 보건관리자로서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주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관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얼마 전 노동자 한 명이 건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약 처방이 필요한 수준의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

소통으로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장수연 보건관리자는 현장에서 노동자와 대면하는 일이 잦다. "제가 아무리 보건관리자 역할에 충실한다 해도 현장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보건관리 업무예요. 반대로 담당자인 저도 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현장을 많이 알아야 하고요.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현장 직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아요. 따라서 현장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 발전소 안에서 일하는 8시간 동안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파악하려면 6시간 이상 신체에 측정기를 착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나, 일정에 맞춰 검진 대상을 병원에 보내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사람과 소통할 일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 볼 기회를 자주 만들었어요. 현장 노동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서요.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간호사가 건강 상담을 할 때면 늘 동행했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보건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요."

> 사람과 소통할 일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 얼굴 볼 기회를 자주 만들었어요. 현장 노동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서요.
>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간호사가 건강 상담을 할 때면 늘 동행했죠.
>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보건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처는 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직업성 난청인 C1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맞춤형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소음으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소음으로 한 번 망가진 귀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근본적 예방 안을 고민하다가, 노동자 개개인의 귀를 본떠 만든 맞춤형 청력보호구를 도입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현장 노동자 360명 가운데 41명에게 청력보호구를 보급했으며 차츰 지원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에요."

맞춤형 청력보호구를 사용한 노동자 대다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귀마개와 다르게 귀에 딱 맞아 편하고, 소음은 차단하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제 업무 목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산업개발(주)보령사업처에 맞는 맞춤형 보건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